

#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道”



선각원 원공 스님

도봉산 아래 위치한 선각원을 찾았다. 오로지 30년 동안 걸어서 천하를 주유한 원공 스님을 만났다. 처음에는 통일을 화두로 해서 10년 정도 국토순례를 하겠다고 원을 세웠다. 그렇게 시작한 걸기 수행에 자연환경이라는 화두를 더해 올 3월에 30년을 채웠다. 서른 해를 오로지 자신의 두 발에 의지하여 걸어서 다녔으니 무쇠고집이라 할만하다. 일본이나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탔지만,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단순히 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백두대간을 주유하면서 곳곳에 도라지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쓰레기봉투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주웠다.

스님은 길을 가다가 절을 만나면 절에서 교회를 만나면 교회에서 하룻밤을 머문다. 마땅하게 머물 곳을 만나지 못하면 침낭을 꺼내어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노숙을 하는 것이다. 스님은 인가가 없는 산길을 걸을 때면 생라면과 생쌀을 먹으면서 허기를 해결하였다. 원공 스님의 삶은 정해진 틀이 없는 무정형의 삶이다.

스님은 작년에 서울에서 원통 인제를 거쳐 속초로 가던 중 국도에서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다 다리 아래 개울에 떨어지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인대가 파손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구급차를 타야만 하는데도 스님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100리길을 걸어서 갔다.

“한국에서 차도를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해요. 걸기를 마치고 숙소에 들면 ‘아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 때가 많아요.”

원공스님은 옥수수 100톤을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중국 땅을 걸었다. 중국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인도가 있어 걸기에 좋았고 일본 역시 사람을 배려한 도로설계여서 걸기에 좋았다. 그런데 기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차량에 대한 배려는 넉넉해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기만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연이 경제논리, 개발논리에 밀려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공 스님은 반기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걸기 수행을 하였다. 원공 스님은 쓰레기 줍기로도 유명하다.

“쓰레기들이 여권도 비자도 없이 마구 국경을 넘어다닙니다. 일본에서는 막걸리병을 비롯하여 한글이 쓰인 쓰레기들을 보았고 포항해안에서는 일본 쓰레기들을 보았어요. 또 제주도에서는 중국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떠밀려온 걸 확인했지요. 공해에 폐기를 쓰레기들을 마구 버리니 바다의 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자연에게 미안해서 주물 주물했다고 한다. 쓰레기 주물 때 더럽지 않느냐고 했더니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이 행어 더럽혀지지 않을까를 경계해야지.”라고 한다. 원공 스님은 이번 만행 때는 태안반도에서 15박 16일 동안 기름제거 작업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기름제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태안반도는 살아나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스님의 철학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원공 스님과 함께 쓰레기를 주워 본 사람들 역시 겸손한 생

국과 일본의 월드컵 경기장 스투 곳을 123일 동안 걸어 다녔다.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일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도보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속내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또 하나의 커다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발걸음이기도 했다. 일본 땅을 걸어 다니면서도 쓰레기 줍고 도라지씨앗을 뿌렸다.

원공 스님은 “대운하건설은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원공 스님은 한강과 낙동강 그 줄기를 수없이 걸어보았으며, 2003년 약 4개월간 한강 금강 낙동강 삼진강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 등의 강줄기를 따라 걸었다. 운몽으로 강을 건너기도 했다.

“한강에서 낙동강 그 강줄기는 한반도의 등줄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2는 한강과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바지선이 뜨기 위해서는 강폭이 넓어야 할뿐더러 강이 깊어야 하기에 바닥을 6-10미터는 파야 하는데, 강 바닥에 어디 모래만 있는가, 암반도 있지. 그럴 때는 화약으로 폭파시켜야 하는데 그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바지선을

## 30년째 우리 국토 곳곳 돌면서 걸기 수행

### ‘저소유’의 삶 몸소 실천하며 말없는 포교

활을 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 스님은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말없이 포교를 하는 것이다.

전국 산천에 널린 것이 쓰레기인데 스님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깨끗해지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내가 주운 만큼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줍는 일 밖에 없으니 그 일이라도 해야지.”라는 답을 들었다.

지금 스님이 거쳐하는 한 칸의 방은 누런 초배지로 도배되어 있으며, 전기 스위치는 아예 초배지로 발라 버렸다. 에너지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전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공 스님이 지금 입고 있는 개량한복은 무문관에서부터 입고 있던 옷이라고 하니 어렵잖아 30년은 족히 된다. 그리고 그 한 벌의 옷은 스님이 가진 의복의 전부이다. 누군가가 만행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약간의 보시금이라도 주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자선단체에 보내거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들에게 공양을 베푼다. 스님이 야말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무소유는 없다. 저소유라고 해야지.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라고 한마디 특 단지신다.

2002년 원공 스님은 열한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한

피우기 위해서는 곳곳에 보를 만들고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었어요?”

자연이란 역겹의 세월동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물 길을 내고 해서 스스로 가꾸어 온 것인데 경제논리로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원공스님은 2006년 만행 때 한계령에서 큰 홍수를 만났다. 그때 인간이 풀어 놓은 큰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옛길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함부로 물길을 만든다는 것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았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태수가 약산유엄선사를 찾아가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유엄선사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속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도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도라는 말이다. 원공 스님 또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논리에 맞는 것이며, 더 이상의 난개발은 인간의 삶을 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연과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하나이지 결코 둘이 아님을 온 몸으로 체득한 원공 스님의 말씀이기에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경책으로 들린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는설위원)



#### 원공스님은

1979년 도봉산의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서 6년간의 수행을 성만하고 나서 곧바로 두타행에 나섰다. 1980년부터 83년까지 1000일간 전국을 걸었다. 그 후에도 통일기원 180일 국토순례, 이산가족 고향자유왕래 염원 220일 순례, 2002년 123일간 환경과 평화를 위한 한일 도보 대장정에 나섰다. 2003년 ‘피스 코리아’를 기원하며 한국 해안을 100일 동안 걸었다. 그 후에도 니가타현 지진 피해주민 돕기 운동으로 후쿠오카에서 도쿄까지 400km를 걸었다. 2007년 3월 16일 길을 떠나 일 년 동안의 국토 순례를 끝내고 2008년 3월 16일 서울로 돌아오면서 30년 동안의 걸기 수행을 마무리했다. 30년 동안 한반도를 29번퀴 돌았으며, 면소재지까지 파악하고 있어 ‘움직이는 지도(地圖)’라는 별칭이 있다.

##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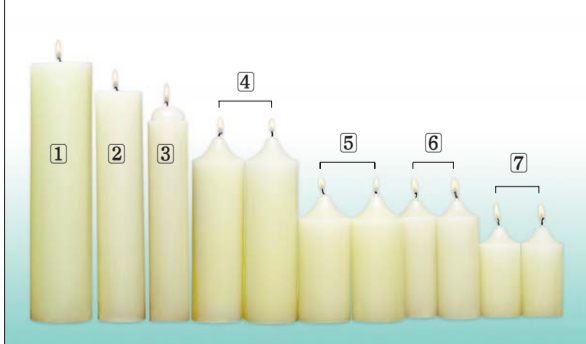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사 받침대 2개사)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사)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등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래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2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1 원기등 7.4φCm × 29Cm
  - 2 돈타래 5.6φCm × 27Cm
  - 3 3호 4.7φCm × 13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 장엄용 양초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